

#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4인 가족 40만원

### 총 3,288억 규모 전액 도비 투입...소비지표 하락 따른 선제적 대응



경상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위기의 선제적 대응이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예산은 약 3,288억 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충당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22년 대비 약 3,7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 자체 예산으로 이번 지원금 마련이 가능한 재정여력 확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18

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시군에서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성룡 기자

# 대구 IEEE 가상현실(VR) 컨퍼런스 개최

### 50개국 1,000여 명 참가...대한민국 최초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대구광역시 세계 최고 권위의 가상현실(VR)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2026 IEEE 국제 가상현실 컨퍼런스(The 33rd IEEE Conference on Virtual Reality and 3D User Interface, 이하 '2026 IEEE VR')를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1993년 시작된 'IEEE VR'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확장현실(XR) 및 3D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50

개국 1,000여 명의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구글, 엔비디아, HDC랩스, b햐픽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국내외 주요 기업과 기관이 대거 참여해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제 학술 논문 발표 ▲XR 갤러리 ▲첨단 기술 전시 ▲페널토의 ▲워크숍 및 튜토리얼 등으로 구성되며, AI 기반 XR 기술, 산업용 메타버스, 몰입형 인터페이스 등 미래 핵심

기술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기조강연에는 구글 AR·VR 연구책임자 마르 곤잘레스-프랑코 박사(Dr. Mar Gonzalez-Franco), 의료 가상현실 분야 권위자인 알버트 스킵 리조 박사(Dr. Albert "Skip" Rizzo), 엔비디아 전략 연구 총괄 토마시 베드나르츠 박사(Dr. Tomasz Bednarz)가 나선다.

이들은 인간-AI 공생형 XR 기술, 임상·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의료 VR, 산업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피지컬 AI 등 가상융합산업의 핵심 미래 기술을 조망할 예정이다. 이번 '2026 IEEE VR' 개최는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가상융합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확장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성장 기반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대학교 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XR·VR·AI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윤석 기자

# 부산시, 느린학습자 5개년 기본계획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2026-2030)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10여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부산시는 앞서 2023년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재단과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과 진로탐색 및 사회적 향상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추가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여 총예산 3억 3천8백만 원으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

사 결과와 토대로 현장의견, 가족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입할 3대 전략,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 전략은 '진단체계 구축 및 실태파악'으로 진단-상담-사례관리-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구조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정책 환류 체계 구축이다.

조기 발굴 및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지능검사 이전 단계에서 고위험군 선별 및 보조 진단 기구의 개발·보급 ▲진단검사비용 지원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단 절차를 마련한다.

두 번째 전략은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요구되는 역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이다. 학령기 성장 지원을 위해 ▲포괄적 학습, 감정조절,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정서 발달 프로그램 운영 ▲가정 내 학습, 정서 지지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중심 교육으로 실질적 대응 능력 확보 ▲관계기관 등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상자 중심의 연속적·통합적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이우영 기자

#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30주년 기념 연찬회

### 6개국 52개 지방정부·기관 참여 역대 최대...경북 지방외교 위상 입증

양근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19일 경주에서 열린 「2026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회원정부 연찬회(워크숍)」에 참석해 회원정부 대표단을 환영하고, 동북아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와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사무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한 이번 회의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한 상징적 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45개 지방정부와 7개 유관기관, 주한 외교단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은 1996년 경상북도의 주도로 창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9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지방정부 협력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05년 포항에 상설 사무국을 유치한 이래 동북아 지방외교의 중심지로서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올해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최식에서는 임병진 사무총장

의 회회사와 양근희 경제부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김숙 전(前) 주유엔대사의 기념연설이 진행됐다. 이어 사무국 업무보고와 회원정부별 정책 발표, 일대일 교류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임병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

합 사무총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회의는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의 높아진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동북아 공동 번영과 평화를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근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의 창립 회원정부로서 지난 30년간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여정을 함께해 온 것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회원정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포항-울릉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장기 결항 예방 대책, 비수기 항로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다뤘다.

한윤석 기자

# 영천시, 태산·태산글로벌과 220억원 투자협약 체결

### 금호일반산업단지 5,500평 부지 양금 및 베이커리 제품 생산라인 구축

영천시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태산과 농업회사법인 ㈜태산글로벌과 2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시장, 허광욱 ㈜태산·농업회사법인 ㈜태산글로벌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태산과 ㈜태산글로벌은 영천시 금호일반산업단지 내 약 5,500평 부지에 총 220억원을 투자해 양금 및 베이커리 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

획이다. ㈜태산은 1994년 설립된 양금 전문 제조기업으로, 제과·제빵용 양금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품 소재를 생산하며 국내 식품기업과 프랜차이즈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제품을 수출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태산글로벌은 2023년 설립된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와 브랜드 사업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 브랜드 '알렛(ALLET)'을 선보이며 모찌 등 다

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투자협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이번 투자가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중앙동 '장애인 자립주택'에서 입주자의 자립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응원하기 위해 입주 환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망동동 자립주택에서 남매의 첫 자립을 축하하는 입주 환영식이 열린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입주는 32세와 29세 남매로, 그간 자립 준비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김미희 과장은 "장애인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 울주군, 범서근린공원 '첫삽' 대규모공원 조성 본격화

### 범서근린공원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총 사업비 422억 원 투입해 조성



울주군이 범서근린공원을 시작으로 지역 내 대규모 생활권 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울주군은 19일 범서읍 구영리 494-1번지 일대에서 '범서근린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이순걸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 및 시군의원,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범서근린공원은 울주군이 추진하는 대규모 생활권 공원조성 사업 중 하나로, 총 사업비 422억원을 투입해 범서읍 구영리 새못저수지 일대 18만6천108㎡ 부지에 조성한다. 앞서 새못저수지 일대는 아름다운 풍경과 산림을 품은 훌륭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축사 악취를 비롯한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울주군은 이곳 일대에 범서근린공원을 조성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녹색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저수지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수변 산책로와 어린이를 위한 모험놀이터, 잔디마당과 피크닉가든 등 가족 휴식공간이

조성된다. 또 북카페·숲속도서관 등 힐링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자연경관을 즐기는 전망대와 수변무대 등이 마련된다. 군은 지난해 토지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을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달 동측 저수지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안에 서측 산지 구간에 대한 추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쾌적한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선바위공원까지 단절됐던 공간을 잇는 수변 녹지축을 형성해 군민이 일상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근 기자

# 프랑스요리 명장들, 경상남도 굴 생산 현장을 찾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21일 오전 세계적인 셰프 단체인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소속 셰프들이 통영 굴 생산 현장을 방문해 경남 굴의 생산과정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026년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세계총회의 공식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총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프랑스 요리 셰프들이 국내 주요 수산물 식재료 생산지를 방문하는 일정이다.

현장 방문에는 MCF 소속 셰프 180여 명을 포함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통영·거제시 일대 굴 생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이자 굴 수출량의 91%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굴을 기반으로 국내의 수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세계 미식계를 대표하는 셰프들에게 경남 굴의 생산환경과 품질 경쟁력을 직

접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셰프들이 경남 굴을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남 굴의 생산환경과 품질 경쟁력을 국제 미식 네트워크에 홍보하고, 프리미엄 수산물 이미지 제고와 글로벌 시장 확대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세계적인 셰프들이 직접 경남

굴 생산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경남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남 굴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수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19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기후위기 시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경남 물포럼'을 개최했다.

최성룡 기자